도쿄 코리안 타운, 오쿠보지역의 시공간과 로컬리티의 변화*

조 현 미**

Ⅰ. 서론
Ⅱ. 오쿠보지역의 개관
Ⅲ. 오쿠보지역의 시공간적 변화
Ⅳ. 결론

국문초록

로컬리티란 특정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사회적 관계 및 역사적인 과정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컬리티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와 그 내부의 다양성들이 어떻게 특정 장소에서 교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쿠보지역은 에도시대 이래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구조와 그 지역의 주민계층의 특성이 현재의 지역특성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개발이

* 이 논문은『경북대학교 지리학논구』제24호, 2005년에 게재된「세계화시대의 로컬리티」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hmjo@knu.ac.kr

뒤처지고 노후 된 주택과 가로망의 구조가 특수집단의 은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사회적인 하층계층의 거주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일본의 패전과 미군정기간을 거쳐 오쿠보지역은 일본의 이민정책의 완화와 한국의 해외여행자유화, 일본의 거품경제시기와 경기침체, 한일간의 정치양상의 변화 등에 따라 한류의 열풍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코리안 타운으로 번성하는가하면 우익들의 반한감정 표출지로 대두되기도 했다. 오쿠보의 코리안 타운은 한일우호의 상징임과 동시에 새로운 한국문화의 상징적인 장소였으며, 또한 일본 우익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오쿠보는 한류붐의 침체와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온 중국과 베트남, 네팔 등의 아시아인들로 주역이 바뀌면서 새로운 혼종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오쿠보지역의 로컬리티는 글로벌/내셔널 한 역사적 흐름이 구성원과 경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천해 왔다.

◈ 주제어
오쿠보지역, 로컬리티, 코리안 타운,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장소감, 장소형성

Ⅰ. 서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생활공간의 모습과 그 공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위기는 해당 공간이 겪어온 시간의 중첩에 의하여 형성되어 지는 것으로 시대와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나 사회는 특정 지역의 표층(表層) 깊은 곳에 축적되면서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으며,[1]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적인 집합과 융합의 결과가 장소성, 즉 로컬리티로서 구현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있어서 로컬에서 내셔널로, 그리고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는 로컬의 한 일각은 크건 작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정보통신기술혁신을 기초로 한 상호의존관계의 심화가 초래한 사회공간의 재편성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2] 이는 로컬 대 글로벌의 변증법적 관계와 관련한 매시(Massey)의 주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글로벌한 것은 로컬 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로컬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컬이 그 경계 바깥의 어떤 것들과 연계되어있음에 유념해야하고, 로컬적인 것의 형성과정에 글로벌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소위 '글로벌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을 제시하였다.[3] 매시에 따르면 로컬과 장소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각 장소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사회관계와 사회적 과정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모습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컬리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장소는 원인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내재적 특성이 아니라 외부적 관계특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4] 그러므로 로컬

1) 野呂芳明, 「変貌する東京の景観-街を見る複数の視点」, 『グローバル都市研究』, 3, 2010, 83쪽
2) 石黒 馨 · 上谷 博,『グローバルとローカルの共振』, 人文書院, 2007, 20쪽
3) Massey, D,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94, p.280
4) 조현미,「요세바 고도부키에서의 시공간과 로컬리티의 변화」,『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2016, 384쪽

리티는 사회적관계의 특성이 시간적 경과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해가는 것이므로 구성원의 사회적 행위로의 참가나 타인 혹은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한 이들에게 부여된 의미를 통하여 재구성/재창조 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장소감'이라는 개념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특정장소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고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역사적 흐름의 상호역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소란 더 이상 영토에 묶여 있거나 범주적인 것이 아닌 일군의 사회공간적 관계의 조합과 일치하며, 사회공간적 관계는 역사적으로 한 특정 공간 내에서 분리되어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변지역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5]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주민들 자신이 속해있다고 느끼는 특별한 장소감은 그 장소의 구체적 역사 및 온갖 종류의 동시대적 변화의 충격이 복잡하게 조합된 결과물[6]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시간은 공간에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로컬공간은 장소와 관련한 역사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의 동질성과 외부와의 차별성에 의해서 지역적 특성(로컬리티)이 인식될 수 있는데, 내부의 동질성은 외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지역적 특성을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한 지역은 전 지구성을 띨 수 있다.[7]

한편, 로컬리티의 재검토에서 장소의 본질을 구하고자 한 스미스(M.P.Smith)는 '시간과 공간을 재편하는 글로벌적인 命名'에 대치되는 '가족이나 커뮤니티, 장소, 지역, 국가라고 하는 방어적인 장소'로서의 로컬, 혹은 '글로벌적인 지배에 대한 궁여지책의 저항을 만들어내는 장'으로서의 로컬이라고 하는 이항 대립의 도식을 대신하여 매시의 '장소론', 이른바 '장소의 대

5) 조현미, 「베트남 북부지역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초국가적 사회공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2013, 495쪽
6) 임승연, 이영민, 「오사카 한인타운의 장소성과 재일한인 정체성의 관계적 특성연구」, 『로컬리티인문학』, 5, 2011, 87쪽
7) 조현미, 앞의 논문(2013), 495쪽

체가능한 해석'을 인용하면서 '장소라는 것은 그 곳 특유의 내재화된 역사나 침전되어있는 성격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관계나 사회과정, 경험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co-presence) 것'으로 보았다.[8] 또한 J. Johnston은 '장소는 개인이 물질적 및 지적존재를 재생산하는 곳으로, 사회적 행위로의 참가, 타인이나 제도와의 상호작용에의 관여를 통하여, 또한 이들에게 부여된 의미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역을 사회의 공간구조의 하나의 특수한 차원을 나타내는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제도적인 영역'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집단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장소=지역'으로 보면서 이항대립의 초월을 시도했다.[9]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E. 소자(Soja)의 '제 3공간'에 관한 연구도 이러한 시도 중 하나이다. 소자는 공간을 물리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체로 보고 사회적 산물인 공간은 그 내부에서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과 사회를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했는데,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오늘날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이 공간을 매개로 작동하는 자본·국가·계급 등을 통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틀로서 공간정치 경제학의 역할을 제시했다.[10] 그렇다면 물리적 실체인 공간에 사회적 산물로서의 시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조직화하며 형상화하는가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공간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민족/인종이 번갈아가면서 점유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독특한 경관을 생성하고 변화시켜 나갈 때 그 장소의 로컬리티는 더욱 다양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트랜스내셔널 커뮤니티(transnational community)'가 형성되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이민/에스니시티(ethnicity)'의 존재를 둘러싼 '차이'와 '주변성'을 둘러싼 문제, '복수의 아이덴티티를 둘러싼 정치/헤게모니'의 전개, '해체와 재구성' 과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음에 주목하여 '장소형성(place-making)'이라는

8) Smith, M.P., 2001, *Transnational Urbanism*, Malden, MA:Blackwell, p.107.
9) 広田康生 · 藤原法子, 앞의 책, 56쪽
10) 류지석, 『로컬리톨로지를 위한 시론, 로컬리티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9, 24쪽

개념을 제시한 히로다(広田)의 주장[11]은 설득력이 있다. 이는 초국가적 이주를 선택한 '이민/에스니시티'가 정주지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트랜스내셔널 커뮤니티에 있어서의 '장소의 획득'과 '장소의 아이덴티티의 정치학'의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본질론이 아닌, 오히려 '해체와 재구성' 안에서 행위자의 아이덴티티의 소재(所在)나 '기억의 상상적 이용'이라는 것들이 장소와 관련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장소형성을 둘러싼 계층 간, 혹은 민족 간 경쟁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러한 실천은 처음에는 일상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탈구축적으로 이용하면서 스스로의 장소를 획득하며, 정치적·사회적 변동시기에 이러한 장소는 흔히 주류세력 혹은 주류집단의 '통합'압력과 격렬하게 부딪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물론 트랜스내셔널 커뮤니티는 과거의 이민 커뮤니티처럼 같은 민족/인종들 끼리만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쿠다(奥田)[12]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 정보, 사람들의 움직임의 磁場'으로서의 장을 형성하기에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트랜스내셔널 커뮤니티의 장소감과 장소형성의 역학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시의 '글로벌 장소감'과 히로다의 '장소형성'의 인식에 기초하여 '글로벌도시 도쿄'[13]의 한 일각, 신쥬쿠구(新宿区)의 오쿠보(大久保)지역을 사례로 글로벌/내셔널 한 역사적 흐름이 오쿠보지역의 구성원과 경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표출되는 로컬리티의 시공간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시기는 오쿠보지역의 형성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시기인 에도시대(江戸時代)부터 2017년 현재까지이며,[14] 분석자료는 2005년과 2012년 실시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신쥬쿠구사(新宿区史)를 비

11) 広田康生 · 藤原法子, 앞의 책, 38~39쪽
12) 奥田道大編,『コミュニティとエスニシティ』, 勁草書房, 1995, 142쪽
13) 사스키아 사센지음·남기범 역,『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 푸른길, 1998.
14) 본 연구에서는 오쿠보지역의 로컬리티 변천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던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므로 시기구분이 균등하지 않음.

롯한 관련 문헌 및 인터넷자료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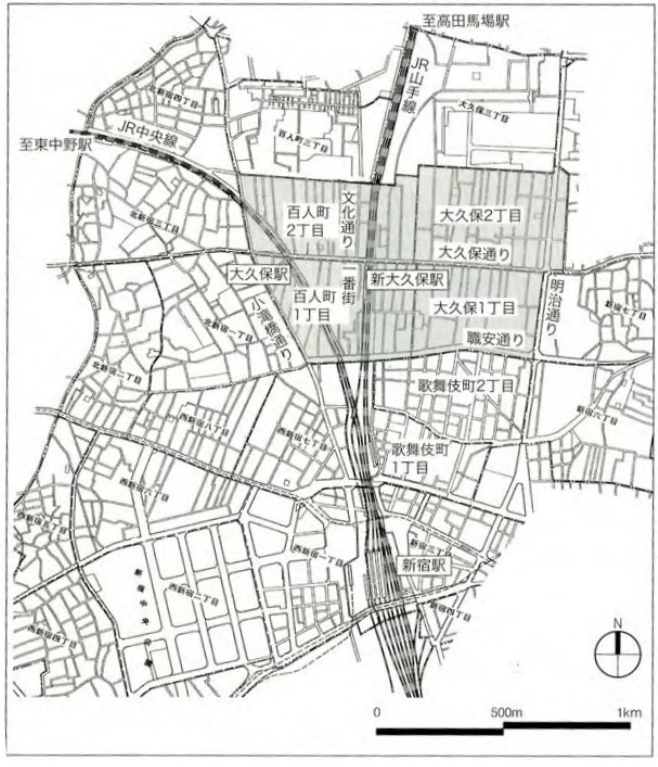
Ⅱ. 오쿠보지역의 개관

일반적으로 도쿄도(東京都) 신쥬쿠의 코리안타운이라고 하면 신오쿠보역(新大久保駅)의 동쪽에 위치한 오쿠보도로(大久保通り)와 쇼쿠안도로(職安通り)를 지칭하지만 본고에서는 오쿠보지역을 신쥬쿠구에서 발간한 「오쿠보의 역사(大久保の歴史)」에 기록된 '에도시대의 오쿠보초(江戸時代の大久保町)'에 의거하여 햐쿠닌초 1초메(丁目)와 2초메, 오쿠보 1초메와 2초메에 걸친 지역으로 규정한다(그림 1). 이곳은 신쥬쿠구의 북서편에 위치하면서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의 이공학부가 위치한 분쿄(文京)지구와 환락가인 가부키초(歌舞伎町)[15]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도쿄지하철 부도심선과 도영지하철 오에도선(大江戸線)의 역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JR야마노테선(山の手線)의 신오쿠보역(新大久保駅)과 JR주오선(中央線)의 오쿠보역(大久保駅)이 있어 도쿄에서도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남쪽으로 가부키초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가부키초와 연속되는 거리에는 일반주택과 함께 각종 전문학교가 많이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러브호텔가가 늘어서 있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마을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오쿠보지역은 현재 신쥬쿠구에서 가장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장소이며, 한국인대상의 점포가 많은 쇼쿠안도로가 있는 햐쿠닌초는 오쿠보와 함께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으로 불렸던 곳으로, 주변에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태국, 미얀마 등의 아시아 여러나라의 요리점과 잡화점 등

15) 도쿄의 밤 문화를 대표하는 환락가로 성(性)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들이 즐비하며 식당, 클럽, 가라오케, 파친코와 같은 유흥업소가 밀집해있다. 국내 웹 사이트 가운데에는 해당지역을 검색하면 '치안이나 위생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험지역'이라고 표시되는 곳도 있다.



<그림 1> 오쿠보(大久保)지역의 범위
출처 : 稲葉(2008), 본고에서는 西岡(2011)에서 재인용

과 같은 에스닉 상점이 집중되어 있다. JR 오쿠보 역이나 신오쿠보 역을 잇는 오쿠보 거리를 걷다보면 일본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릴 정도로 외국인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오쿠보 지역의 편의점과 음식점 점원은 과반이 외국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지마(田嶋)는 오쿠보를 가시적으로, 비가시적으로 다양한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가 교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층적인 마을'이라고 하였다.[16]

16) 田嶋淳子, 「世界都市 · 東京にみる重層的地域社会の現実」,『コミュニティとエスニシティ』, 勁草書房, 1995, 115쪽

코리안타운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에 이곳에는 약 400개소에 달하는 한인상점과 기관들이 들어서 있었고, 신쥬쿠를 중심으로 발행되어 동포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한인정보지가 무려 30여종에 이르렀다.[17] 하지만 2010년 이후 점차 한인상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에 대처하는 양상으로 중국, 베트남, 네팔, 미얀마 등의 아시아계 상점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고, 오쿠보지역은 '코리안 타운'보다는 '에스닉 타운' '다문화 거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쿠보도로에도 아직 한인상점의 수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코리안 타운의 중심이 쇼쿠안도로에 직각으로 교차하여 오오쿠보 거리를 향해 뻗어있는 통칭 이케멘 거리(イケメン通り, 미남 거리)로 옮겨진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18]

Ⅲ. 오쿠보지역의 시공간적 변화

오쿠보지역은 서쪽으로 키타신쥬쿠(北新宿)를 거쳐 나카노(中野)로 이어지는 시가지를 따라 목조임대아파트가 이어지는 서민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전후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지방에서 도쿄로 상경한 학생들이나 젊은 노동자를 위한 주택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오쿠보지역의 뒷골목은 지금은 맨션으로 개축한 곳도 많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좁고 긴 골목길 안쪽 깊숙이 위치한 목조임대아파트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특성에 영향을 주면서 지역경관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1. 에도(江戸)시대(1603년~1867년)의 오쿠보(大久保)지역

에도[19]는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전국시대(戰國時代)를 평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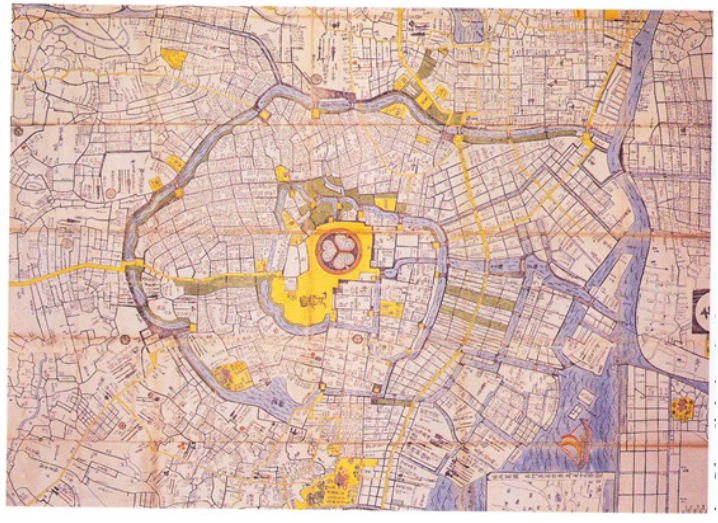
17) 조현미, 앞의 논문(2005), 222쪽
18) http://www.nippon.com/ja/features/c02401/(2017년11월21일 검색)

막부(幕府)체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1603년부터 15대 쇼군(將軍) 요시노부(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 1867년까지 정권의 본거지였다. 나라(奈良)와 교토(京都)는 천황이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권력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에야스 이후 에도는 실질적인 정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에도시대는 인구 5~6%의 무사계급이 80% 이상의 농민과 상인을 지배했던 엄격한 신분제도의 사회였다. 최고통치자인 쇼군 아래에 무사계급도 여러 계층으로 구별되었으며, 철저한 주종(主從) 관계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지배계급이라 해도 하급무사는 정해진 녹봉을 받는 도시의 소비자에 불과하였다.

한편, 이에야스가 에도에 입성하여 맨 먼저 실시한 것은 교통과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항만과 하도의 건설을 필두로 한 도시계획이었다. <그림 2>에서 보면 수많은 수로들이 에도성을 둘러싸면서 외부와 연결되고 있는데, 이 수로들은 외부로부터 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물자와 사람들의 수송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에야스의 성을 중심으로 무사들과 무사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직인 및 상인들의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에도의 팽창은 지방의 다이묘(大名)[20]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실시한 참근교대(參勤交代)[21] 에 의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참근교대에 의해서 전국의 다이묘는 모두 에도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에도의 서민들은 이 무사들을 받들며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의 상업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신쥬쿠구는 해자내부의 무사들의 거주지역에 속하지 못하는 외곽의 변두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 일대가 주목받게 된 것은 현재의 오쿠보의 동남쪽에 당시의 최대권력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방응장(放鷹場)[22]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쿠보도로의 남쪽을 고단

19) 江戶, 도쿄의 옛 이름
20) 봉록 1만석 이상의 무사
21) 에도막부가 지방 다이묘들에게 부과한 의무의 하나. 원칙적으로 격년교대이며, 석고(녹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인원수의 식솔과 무사들을 거느리고 에도에 들어가 쇼군의 통수 하에 들어가는 제도.
22) 영주가 매를 풀어놓고 사냥을 하는 장소로서 타카바(タカバ, 鷹場) 혹은 狩場라고도



<그림 2> 1693년의 에도(江戶)
출처 : Keiko Imai, Old Tokyo,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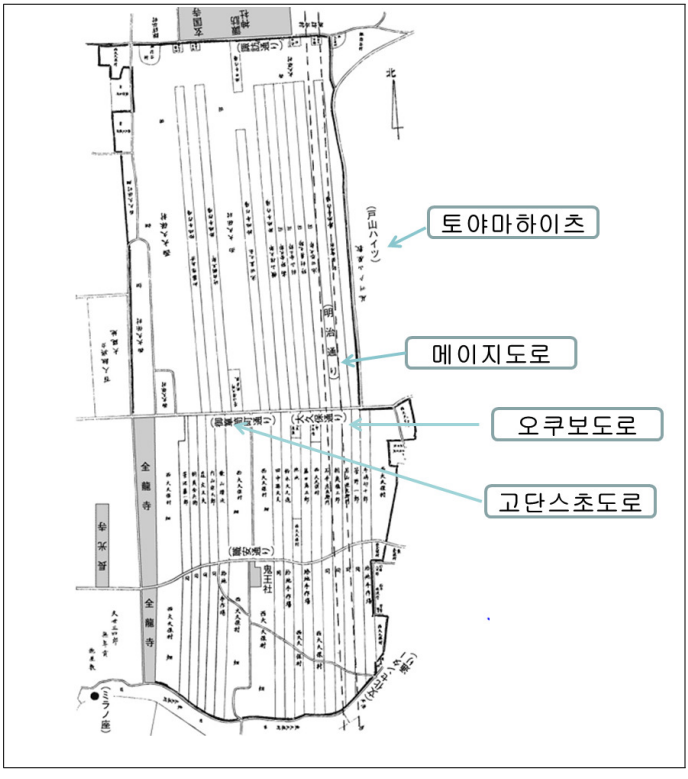
스쪼(御箪笥町)라고 했는데, 이는 무기를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었으므로 오쿠보도로의 남쪽에는 도쿠가와의 방응장과 함께 무기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23]

<그림 3>을 보면 중앙에서 西大久保村을 거의 남북으로 이등분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오쿠보도로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조성되어있는 좁고 긴 장방형의 부지이다. 당시의 에도는 이에야스 이전에는 오다하라(小田原北条)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에야스는 그 잔당이 특히 에도의 서쪽에서 공격해올 것을 염려하여 미가와(三河)시대부터의 신하였던 나이토슈리노스케(内藤修理亮清成)에게 철포백인부대(鉄砲百人組)를 맡겨 현재의 신쥬쿠 1~2초메 주변에 주둔시켰다. 그러므로 신쥬쿠 서쪽의 방어와 경계를 담당했던 것이 철포백인부대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다.
23) 조현미, 앞의 논문(2005), 223쪽

인 1600년에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전투(関ヶ原の戦)에서 승리하여 천하를 지배하게 되지만 이전부터 철포부대의 위력에 주목하고 있었던 터라 막부(幕府) 창설을 계기로 철포백인부대를 자신의 수중으로 끌어들였고, 주둔지에서 정주화시키는 일환으로 나이토숙소(内藤宿)[24]와 오쿠보햐쿠닌초(大久保百人町)를 조성했으며,[25] 하급무사에게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장방형으로 좁고 긴 형태의 토지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장방형으로 분할하는 토지분할방법은 가장이 출병한 후 남아 있을 가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웃과 근접시켜서 집을 짓는 방식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출병에 즈음하여 니시오쿠보에 살고 있던 御鉄砲玉薬組에게 명령한 것이 첫 계기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부지를 장방형으로 길게 한 것은 녹봉이 낮은 하급무사들은 정해진 녹봉인 부양미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에 개간되지 않고 있었던 황무지를 부여하여 논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지금도 오쿠보 1·2초메 일대는 남북으로 통하는 길은 있어도 오쿠보도로와 쇼쿠안도로 이외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길이 없는 것은 에도시대부터의 장방형의 토지분할의 흔적이다.[26]

24) 현재의 四谷大木戸1, 2 초메
25) 鉄砲隊の由来と足跡, http://www.edo-hinawa.com/archives/cat_50150921.html
26) 稲葉佳子 · 塩路安紀子等, 『外国人居住と変貌する街』, 学芸出版社, 1994. 여기서는 조현미, 2005, 앞의 논문 223쪽에서 재인용



<그림 3> 1852년도의 오쿠보(大久保) 일대와 현재의 도로명
출처 : 大久保の鉄砲玉薬組

한편, 햐쿠닌초는 오쿠보지역에 이주해온 철포부대 햐쿠닌구미가 거주하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았다. 이 철포부대가 뒤편의 부지에서 부업으로 재배했던 동백꽃이 '오쿠보의 동백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도에서는 평판이 높았다. 또한 현재의 도립도야마공원(戸山公園) 주변은 오와리 토쿠가와 집안(尾張徳川家)의 부지로서 그 곳은 농지였으며, 하급무사와 농민들이 혼재하는 장소였다.[27] 그런데 '오쿠보의 동백원'의

27) 西岡美樹, 『共生の真実、外国人集住地域における地域の変容』, 大阪私立大学校大

동백꽃은 1903년 6월에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이 개설되면서 대부분 그쪽으로 판매되었고, 그 이후로는 택지화가 추진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볼 수 없다.[28]

에도시대의 오쿠보村는 이렇게 무사들이 거주하는 마을이었지만, 에도시대 300년 동안 전투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무사들은 장군의 성을 호위하고 밭을 경작하면서 메이지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2. 메이지시대(1868~1911)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오쿠보지역

에도시대의 말기, 정치적인 선동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가신들은 에도를 떠났고 무사들의 저택은 방화와 파괴로 황폐화된 채 방치되었다. 하지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던 하층무사들이나 서민들은 여전히 에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막부와 다이묘의 생활을 떠받치는 것이 생활방편이었던 그들은 무사계급이 떠나버리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 직후 에도의 인구는 약 50만으로 격감되는데 1872년 무렵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도로망은 메이지유신부터 관동대지진 무렵까지 기본적인 패턴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29]

막부가 붕괴한 메이지6년(1873년)에 햐쿠닌구미가 차지하고 있었던 부지는 구(舊)일본육군의 발족과 함께 도야마가하라(戸山ヶ原)연병장으로 전환되었다.[30] 현재의 와세다대학 이공학부 부근은 실탄사격장이 되고, 그 외에도 <그림 4>의 상단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육군 도야마학교, 육군 군악학교, 도쿄 육군유년학교, 육군 군의학교 등 군관계의 시설이 이 지역에 계속

学院卒業論文, 2011. 8~9쪽

28) 徳永康元,『ブダペスト回想』 所収「大久保の七十年」, 여기서는 위키피디아, 햐쿠닌쪼에서 재인용
https://ja.wikipedia.org/wiki/%E7%99%BE%E4%BA%BA%E7%94%BA

29) 조현미, 앞의 논문(2005), 224쪽

30) 鉄砲隊の由来と足跡, 앞의 검색자료

하여 만들어졌으며 오쿠보의 동쪽과 남쪽지역에 대장이나 대신급 인물들의 거주지가 형성 되었다.[31] 그리고 군관계시설의 건설과 함께 오쿠보일대에는 자연스럽게 하급군인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는데, 오쿠보도로를 중심으로 예전의 장방형의 필지가 좁은 단위로 나눠진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오쿠보역이 조업을 시작하였고, 도쿄문리과대학의 물리교실 오쿠보분실이 이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나중에 도쿄교육대학광학연구소와 자원과학연구소, 도쿄도립위생연구소등이 개설되어 국가연구기관들이 츠쿠바(筑波)연구학원도시로 이전할 때까지 이곳에 있었다.[32] 육군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군사관계시설이 연이어 만들어졌으므로 한때 오쿠보지역 일대는 육해군 장관이 30여명 거주하였고, 고이즈미 야쿠모(小泉八雲)나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등의 문학가, 정부고관, 대학교수들이 거주하던 고급주택가였다. 그리고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었던 이곳으로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발전이 시작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으로 오쿠보 일대는 폐허로 변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판잣집들이 들어서게 된다.[33]

한편, 오쿠보지역은 신쥬쿠의 경계지역과 함께 '음악의 마을' '악기의 마을'로도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전에는 독일인 음악가 등 일본의 클래식 음악가가 많이 살고 있었고, '햐쿠닌초 촬영소', 'M 상회' 등의 영화촬영소가 이곳에 위치하여 영화의 마을로 불리기도 했다.[34] 그리고 '외인촌'이라고 불려진 일각에는 초기에 일본악단에 공헌한 외국인 음악가들이 살고 있었다.[35] 문학가 토가와 슈코츠(戸川秋骨)는 이 일대의 당시의 거리상황을 貧家가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에서 군인이라면 尉官, 샐러리맨이라면 중·하급, 관리라면 하급을 주민으로 하는 '고급 빈민굴'이라고 부르기에 적합한 곳이라

31) 大久保の歴史, 앞의 검색자료
32) 위키피디아, 햐쿠닌쪼, 앞의 검색자료
33) 西岡, 2011, 앞의 논문 9쪽
34) 위키피디아, 햐쿠닌쪼, 앞의 검색자료
35) 川本三郎, 「郊外の文学誌」, 66쪽, 단 여기서는 위키피디아, 햐쿠닌쪼에서 재인용

<그림 4> 1887년의 오쿠보(大久保)지역
출처 : 稲葉佳子 · 塩路安紀子等, 1994, 95쪽

고 묘사했다. 더욱이 흥미 있는 것은 오늘날의 오쿠보를 암시하는 것처럼 선교사를 비롯하여 영국인·독일인·스페인인과 같은 유럽인 외국어교사들, 중국인과 조선인등 다양한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36] 그는 '도회지에서는 외국인이 있다하더라도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다지 명료하게는 느낄 수가 없지만 이 일대에서는 한 국부에 집합하여 있으므로 더욱 눈에 띈다'고 표현하고 있어, 당시에 이 지역에 상당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36) 문학가인 戸川秋骨이 1913년 출판한『그대로의 이야기(そのままの話)』에서의 표현. 단 여기서는 稲葉佳子 · 塩路安紀子等(1994), 95쪽에서 재인용.

3.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오쿠보지역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소설『산시로(三四郎)』에서는 오쿠보지역을 교외의 조용한 주택지로 묘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햐쿠닌쪼 부근에서 자란 서양화가인 소미야 이치넨(曽宮一念)은 '그 당시의 오쿠보는 무사시노의 입구임과 동시에 에도시대부터 한적한 은거지, 혹은 소풍을 가는 장소였던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쿠보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지였던 것 같다. 또한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稲妻』에서는 '야마노테의 오쿠보(山の手の大久保)'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에서 '이 부근이 다이쇼(大正)시기에서 쇼와(昭和)시기에 걸쳐 교외에서 도심부가 되었다'고 평론가인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는 말하고 있다.[37]

제2차 세계대전이전부터 '음악의 마을' '악기의 마을'로 알려졌던 오쿠보지역에 전쟁이 끝난 직후, 이번에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신오쿠보역 부근에 악기 수리점을 낸 것을 계기로 악기점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음악관계자가 모이는 마을이 되었다. 나아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노래하는 다방(歌声喫茶)'[38]과 '재즈다방(ジャズ喫茶)'[39]이 많은 마을로도 알려졌

37) 川本三郎,「郊外の文学誌」48쪽, 단 여기서는 위키피디아, 햐쿠닌쪼에서 재인용하였다. 야마노테(山の手)란 도쿄의 도심과 부도심사이를 운행하는 JR 히가시니혼(JR東日本)에서 운영하는 순환철도를 말하지만, 이글에서의 야마노테는 도심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당시부터 오쿠보는 교외에서 도심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38) 손님 전원이 함께 노래(합창)하는 것을 상정한 찻집. 1955년 전후 도쿄 등 일본의 도시부에서 유행하여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리더의 선창에 따라 점내의 손님들이 일제히 노래 부르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반주는 피아노, 아코디언 등으로 연주하였고, 규모가 큰 곳에서는 전속 밴드가 있는 곳도 있었다. 러시아민요, 창가, 동요, 노동가, 반전가(反戰歌), 가요곡 등을 불렀다. 가게에서 독자적으로 편집한 악보를 보면서 노래할 수도 있었다.
(출처 : https://ja.wikipedia.org/wiki/%E6%AD%8C%E5%A3%B0%E5%96%AB%E8%8C%B6)

39) 주로 재즈음악의 SP·LP 레코드를 틀어두고 있어 손님은 감상을 주목적으로 내점하는 형식의 찻집. 1950년대에는 LP 수입음반의 가격이 고가였으므로 수천, 수만 장

으며, 1960년대에 접어들자 라이브 음악공연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신오쿠보는 1970년대 초까지 음악동네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다.[40]

전쟁이 끝나고 1945년부터 1946년에 걸쳐서 주택영단(住宅営団)에 의해 햐쿠닌초에는 450호의 월동주택(越冬住宅)이 건설되었는데, 도야마가하라에도 집합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이 일대는 주택지로 변했다. 직업소개소와 더불어 불법으로 건설노동자를 모집하는 업자들도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건설 붐과 함께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일용직노동자들이 공터나 철로연변 아래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살기 시작했고, 판자촌이 만들어졌다.[41] 그와 함께 1948년에 롯데 신쥬쿠공장이 조업을 개시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몰려오면서 더욱 많은 한국인이 모여들게 되었다.[42] 더욱이 1950년대에는 제주도 4·3사건과 6.25전쟁의 영향으로 일본으로의 도항자가 증가하면서 지역민을 상대로 한국 슈퍼마켓과 식당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용직노동자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간이숙박업소도 증가하여 1960년대에 신오쿠보는 도쿄 북부의 산야(山谷)지역과 함께 일용직노동자 타운이자 일본에서 가장 큰 재일한인 거주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43]

한편, 현재와 같은 국제거리로서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1950

을 소장하는 가게에서는 커피 한 잔으로 본고장의 재즈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곡도 받아주었으므로 당시의 재즈 팬과 음악가들의 집합장소역할을 했다. 쇼와(昭和)초기에 재즈의 보급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멸되었다가 1950년대에 재개되어 1960년대에 전성기를 맞았고, 1970년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출처 ; 위와 동일).

40) 모리 요시타카, 「도쿄 코리아타운 신오쿠보」, 『아시아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푸른숲, 2016,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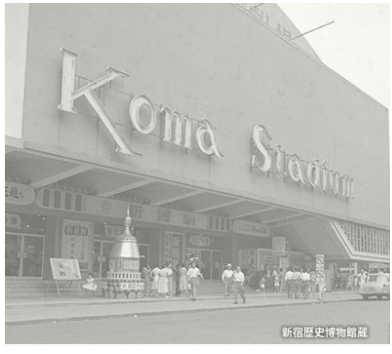
41) 2001년 5월에 신오쿠보역 근처 선로변에 있었던 구 간이숙박업소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후 치안과 방재의 관점에서 일부가 철거되었다.

42) 롯데 신쥬쿠공장은 2013년에 폐쇄된다.

43) 新宿区史 ; http://www.city.shinjuku.lg.jp/soshiki/261700okubo_00028.html

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가부키초를 주 대회장으로 하여 개최된 '도쿄산업문화박람회'를 계기로 흥행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폐허가 된 신쥬쿠 일대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그림 5>의 사진 중앙 계단 뒤에 위치한 전시관에는 나중에 '신쥬쿠 코마극장(新宿コマ劇場)'이 들어서고, 계단 앞의 공간은 '가부키초 시네시티광장(歌舞伎町シネシティ広場)'으로 남게 된다.[44] 그리고 1951년에는 '신쥬쿠 도큐문화회관(新宿東急文化会館)'이 만들어지는 등 카부키초 일대는 급격하게 시민들의 문화·오락장소로 거듭나게 되었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연일 미군병사와 그들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로 붐비게 된다. 그리하여 1955년경부터 러브호텔이 하나 둘 세워지게 되었고, 가부키초에서 오쿠보 일대까지 러브호텔가가 형성되자 예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은 토지를 팔고 떠나기 시작한다.

<그림 5>
도쿄산업문화박람회장(1950년)



<그림 6> 부흥의 심볼,
코마극장(コマ劇場)(1957년)

44)「戦後の新宿、焦土のなかからの再出発」:
https://smtrc.jp/town-archives/city/shinjuku/p06.html

4. 1970년~1980년대의 오쿠보지역

1970년대에 접어들자 구인업체의 퇴조로 많은 일용직 노동자가 이곳을 떠났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가부키초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여성이 증가하였고, 그녀들의 거주지가 된 것이 가부키초에서 도보권내에 있던 오쿠보지역 주변이었다.[45] 나이트 클럽, 바, 성매매업소 등에서 일하기 위해 모여든 여성들은 대중교통이 끊기는 자정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접한 오쿠보지역에 거주하는 편이 유리했다. 자연스럽게 일용직노동자를 위한 숙소는 러브호텔로 개조되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재일한인 공동체와 문화는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았다. 오쿠보지역에는 몇몇 한국식당과 슈퍼마켓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본거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했다.[46]

카부키초 일대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오쿠보지역의 내부적인 변화와 함께 1970년대의 일본을 둘러싼 국제적인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1979년에는 타이완의 해외여행자유화, 1984년에는 중국의 사비(私費) 유학자유화와 같은 인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해외로의 이동에 대한 장애가 줄어들었고, 일본에서도 1983년에 '유학생 도입 10만명 계획(留学生受け入れ10万人計画)'에 의해 외국인 유입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전술한 가부키초에서 일하는 외국인여성뿐만 아니라 일본어학교와 전문학교, 특히 컴퓨터관계의 전문학교가 오쿠보지역 일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많은 유학생과 취학생(就学生)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89년의 한국에서의 해외여행자유화로 인하여 이른바 뉴 커머(new comer) 한국인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스럽게 새로이 정착하기 시작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나라 출신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과 식자재판매점, 미용실과 같은 업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일용직노동자들이 떠난 거리를 외국인들이 메워주는 형태로 점

45) 西岡, 앞의 논문, 9쪽
46) 西岡, 앞의 논문, 9쪽

차 외국인들의 영역이 넓어져갔다. 오쿠보지역은 코리아타운이면서 동시에 다문화타운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5. 1990년대의 오쿠보지역

국제화·글로벌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오쿠보지역에는 한국·중국·필리핀·태국 등 주변 아시아 여러 나라 관련 상점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일본어학교 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거품경제시기에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자파유키상[47]과 이란인 노동자의 모습도 많이 보였으며, 한류 붐과 함께 한국관련 상품을 파는 가게를 찾는 일본인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노동력 수요 감소로 1990년대 이후에는 오쿠보에서도 일용직노동자와 노숙자는 감소했지만 이때까지도 간이숙박업소는 드문드문 존재하고 있었으며, 한때 간이숙박업소였던 곳 중에는 건물을 개축하여 저렴한 비즈니스호텔이나 러브호텔로 변경시킨 곳도 많았다.[48] 그리고 이민자와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비디오 대여업, 그리고 교회와 사원 등의 종교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들어서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오쿠보에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매스컴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에스닉계 시설은 고객의 대상을 동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1990년대 말의 오쿠보지역은 에스닉 타운으로서의 이미지가 정착하게 된다. 이 시기 일본의 이민자수는 신쥬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증가했다. 거품경제 기간 중에 노동력이 부족했던 일본정부는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했다. 이후 아시아를 비롯해 남아메리카, 특히

47) 자파유키상(ジャパゆきさん)이란 아시아에서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1983년 경부터 유행어가 되었다.

48) 위키피디아, 햐쿠닌초, http://www.city.shinjuku.lg.jp/soshiki/261700okubo_00028.html

일본계 이민자가 지난 백 년 동안 살아온 브라질에 특별 비자를 내주면서까지 노동이민을 받아 들였다. 브라질, 페루, 이란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이민자 수가 1990년대 내내 크게 증가했고, 2005년에는 그 수가 2백만에 이르렀다.

6. 2000년대의 오쿠보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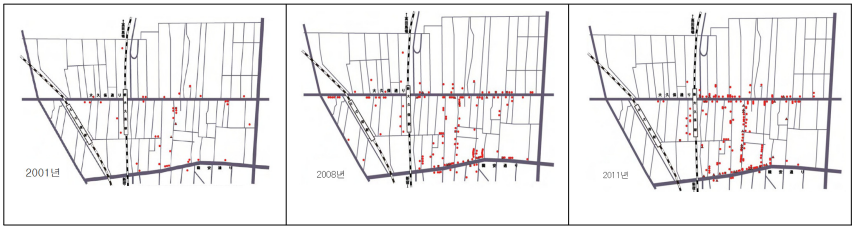
1990년대부터 이어진 한류드라마와 K-Pop의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오쿠보지역에 한국계점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니시오카는 오쿠보지역에서의 한류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상점들의 업종과 고객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49] 2001년 이전에는 오쿠보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가 많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개최와 드라마 '겨울연가'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음식점과 한류스타 상품가게들이 연이어 들어선 시기였다. 이때부터 2008년까지 이어지는 시기를 제1차 한류 붐 시기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가 제 2차 한류 붐 시기로, 미디어에서 K-Pop과 한국의 미용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면서 한류 아이돌 관련 상품점과 화장품점 등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돌의 인기몰이에 몇 몇 바는 오쿠보 출신의 아이돌 보이밴드를 조직하기도 했다.[50] 하지만 이전부터 이곳을 찾는 중년의 한국드라마 팬들도 발길을 끊지 않았으므로 오쿠보는 주말마다 모든 세대의 일본 여성으로 북적댔다.

---

49) 최근 한국과 일본의 여러 언론매체들에서는 일본에서의 한류 붐을 3기로 나누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読売)신문에서의 보도를 인용한 한국의 조선일보, 이 데일리 등의 매체에서는 2003년 NHK에서 '겨울연가'가 방송되며 불었던 드라마 붐이 첫 번째, 2010년 소녀시대·빅뱅의 일본 진출이 계기가 된 K 팝의 인기가 두 번째라면, 지금 화장품 등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붐이 세 번째 한류라는 것이다(조선경제 2017.11.29).

50) 오쿠보지역에서의 한류열풍에 관해서는 2011년8월14일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3일, 신오쿠보의 친구들'에서도 잘 소개되어 있다.

오쿠보지역에서의 한류 붐과 한국계 상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니시오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쿠보지역의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지도상에 표시된 한국계상점의 위치를 보면 신오쿠보역의 동쪽, 오쿠보도로와 이에 평행하는 남쪽의 쇼쿠안도로를 따라 상점이 점재하다가 점차 두 도로 사이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내부의 골목 안까지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오쿠보도로와 쇼쿠안도로는 더욱 상점이 밀집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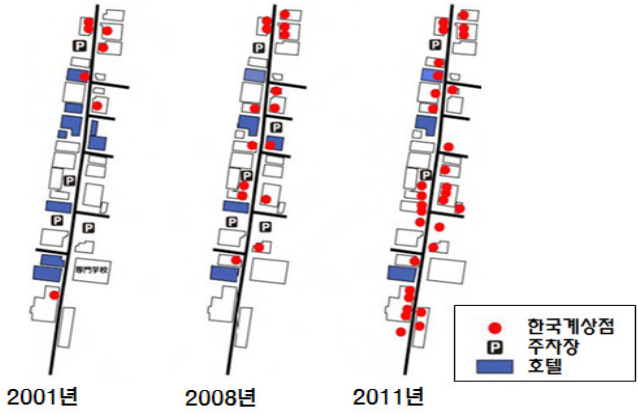


< 그림 7 > 오쿠보(大久保)지역의 한국계상점수의 변화(2001년~2011년)
출처 : 西岡, 15~17쪽

그런데 특이한 점은 수직의 골목 가운데 2011년도에 특히 골목전체를 이어주는 형태로 한국계상점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한국의 연예인처럼 잘생긴 미남 종업원들이 많다하여 일명 '이케멘거리(미남거리, イケメン通り)'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다. 이케멘거리는 타케시타거리(竹下通り)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주택지 가운데 러브호텔과 작은 상점들이 점재해있던 거리였는데, 이곳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상점 수는 더욱 늘어나 '코리안 타운의 중심은 이케멘거리로 옮긴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51] 니시오카가 조사한 지도에서 이케멘거리의 변화를 보면(그림 8), 약 300m 남짓한 거리에서 2001년에는 호텔이 8개, 한국계 점포가 7개가 있었던 것이 2008년에는 호텔이 5개로 줄어들고 한국계 점포가 15개로 증가한다. 그리고 2011년에는

51) nippon.com, http://www.nippon.com/ja/features/c02401/

호텔이 3개로 줄어들고 한국계점포는 31개로 더욱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던 자리와 호텔이 있던 자리가 한국점포로 대체되어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부키초와 인접하여 환락가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던 낮에는 한산하던 풍속(風俗)거리의 양상이 한국계 상점으로 대체되면서 많은 인파로 활기를 띠는 거리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림 8> 이케멘거리(イケメン通り)의 변천(2001년~2011년)
출처 : 西岡, 23쪽

7. 2010년대의 오쿠보지역

오쿠보지역을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나타났던 한류 붐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돌변하게 된다. '자이토쿠카이'[52]라 불리는 배타적 민족주의 그룹이 오쿠보도로를 점령하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발걸음이 주춤해졌고, 한국계상점들의 경기도 급락하기 시작했다. 자이토쿠카이는

52) 자이토쿠카이(在特会)는 자이니치 특권에 반대하는 시민연합(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의 줄인 말이다.

재일조선인이 특권을 갖고 있으며, 일본인은 오히려 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일본 내 조선인 및 다른 외국인을 공격하기 위한 가두시위를 조직했으며 시민사회 운동의 정치행동 방식, 특히 거리집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재일조선인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비속하고 직설적인 인종주의 언어를 썼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종종 '네토우요'(ネットウヨ, 네트워크 우익)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 행동을 조직하고 인종주의 사상을 유포했기 때문이다.[53]

이러한 배타적 국수주의가 이 시기에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012년 여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한류 붐에 제동을 걸게 되었고, 그 결과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시위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을 여러 언론과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54] 더욱이 2012년 아베 정권의 출범으로 양국 간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자이토쿠카이와 같은 우익단체들의 반한감정에는 독도를 둘러싼 논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기인한 양국 간 긴장이 촉매로 작용했을 수는 있다. 여기에 1990년대 초 이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로 청년들은 좌절했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배타적 민족주의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일본의 경제적 쇠퇴와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 약화, 그리고 세계시장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부상에 대한 공포는 일본의 문화정체성과 역사적 과거를 찬양하는 민족주의로 이어졌다.[55] 이러한 극도의 자민족중심주의가 특히 상대국의 정서가 가장 잘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활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쿠보지역의 코리안타운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신쥬쿠 한국 상인 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계 상점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전성기에 비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수십 군데의 음식점과 잡화 판매점 등이 폐점하였다고 하며, 이와 대체하는 것처럼 중국계 등 다른 아시아계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코리안 타운에서의 한국계 상점은 궁지에

53) 모리 요시타카, 앞의 책 342쪽
54) nippon.com, http://www.nippon.com/ja/features/c02401/; 西岡, 앞의 논문 등
55) 모리 요시타카, 앞의 책 3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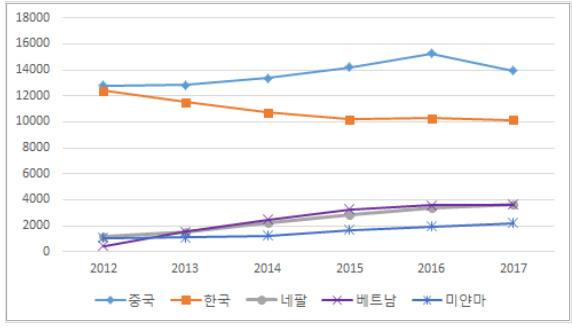
몰린 처지이다. 익명을 조건으로 일본의 웹 잡지인 nippon.com에서 취재에 응한 O씨[56]는 오쿠보지역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오쿠보지역의 안내도인 「코리아타운 지도(コリアンタウン MAP)」을 발행하고 있는데, "증오 연설 데모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무력감을 호소하면서,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정도) 진정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 오쿠보지역에서 행해졌던 자이토쿠카이의 반한·인종차별적인 시위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2013년 2월9일 신오쿠보에서 있었던 반한데모에 대하여 2월26일 정치가 아리다 요시후(有田 芳生)가 트위터에 '이상한 데모다. 국회에서도 문제 삼고 싶다'고 올린 후, 3월 14일에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이를 실행하였고, 이 집회에는 변호사와 신 우익, 저널리스트 등 다수의 정치가가 참여했다. 동시에 CRAC(Counter Racist Action Collective)를 비롯한 반인종주의 그룹들이 자이토쿠카이와 기타 민족주의 그룹의 인종주의 시위에 맞불집회를 열어 저지했다. 그들의 반인종주의 행동으로 인해 혐오발언의 문제가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인종주의의 진전을 막아낼 수 있었다.

56) 일본의 웹 잡지인 nippon.com에서 취재를 한 시기는 반 한국인 시민 단체 중 하나인 '자이토쿠카이'의 데모가 오쿠보에서 수시로 열렸던 시기였다. nippon.com에서의 취재에 응하면서도 '자이토쿠카이'를 의식하여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O씨의 태도에서 당시의 오쿠보의 한인들의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

<그림 9>신오쿠보에서 열린 반한시위(좌)와 이에 대항하는 반인종주의 시위(2013.5.19.) 출처: http://yaplog.jp/littlejohn/archive/12

그렇게 오쿠보지역을 무대로 한 반한시위는 가라앉는 듯하지만 최근의 인구구성을 보면 한국인이 조금씩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인과 베트남, 네팔,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계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그림 10), 이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식당과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는 오쿠보지역을 '코리안 타운'에서 '다문화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때 침체기에 빠졌던 한류가 다시 인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오쿠보지역의 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림 10 > 신쥬쿠구의 외국인인구 추이
출처 : 新宿区住民基本台帳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매시의 '글로벌 장소감'과 히로다의 '장소형성'의 인식에 기초하여 '글로벌도시 도쿄'의 한 일각, 신쥬쿠의 오쿠보지역을 사례로 글로벌/내셔널한 역사적 흐름이 오쿠보지역의 구성원과 경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표출되는 로컬리티의 시공간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매시에 따르면 로컬과 장소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로컬리티란 각 장소가 그 위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인 과정의 교차와 상호작용이 독특한 모습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컬리티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와 그 내부의 다양성들이 어떻게 특정 장소에서 교차하면서 해체/생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관점에서 장소형성은 고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역사적 흐름의 상호역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오쿠보지역은 에도시대 이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구조와 그 지역의 주민계층의 특성이 현재의 지역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 된 주택과 가로망의 구조가 특수집단의 은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 일제식민지시기의 재일한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인 하층계층의 거주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이주민집단의 집단적 거주지의 형태로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러한 거주자의 특성이 지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 현재의 코리안 타운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한국의 해외여행자유화와 일본정부의 이민정책 완화, 일본의 거품경제시기와 경기침체, 한일간의 정치양상의 변화 등에 따라 오쿠보 거리는 한류의 열풍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코리안 타운으로 번성하는가하면 우익들의 반한감정 표출지로 대두되기도 했다. 오쿠보의 코리안 타운은 한일우호의 상징임과 동시에 새로운 한국문화의 상징적인 장소였으며, 또한 일본 우익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극단적으

로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오쿠보는 한류 붐의 침체와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온 중국과 베트남, 네팔 등의 아시아인들로 주역이 바뀌면서 새로운 혼종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로컬리티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그 장소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및 과정의 교차와 상호작용이 독특한 모습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면, 세계도시 도쿄의 일각에 위치한 오쿠보지역에 작용한 역사적 시간들은 오쿠보지역의 구성원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삶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 작용한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에는 국민국가의 내셔널 시간과 글로벌 시간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세계의 정치·경제구조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화해가는 로컬리티 연구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본다.

<그림 11> 오쿠보지역의 시공간 변화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모리 요시타카, 「도쿄 코리아타운 신오쿠보」, 『아시아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푸른숲, 2016, 316~349쪽

사스키아 사센지음·남기범 역,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 푸른길, 1998.

임승연, 이영민, 「오사카 한인타운의 장소성과 재일한인 정체성의 관계적 특성연구」, 『로컬리티인문학』, 5, 2011, 87~123쪽

조현미, 「세계화시대의 로컬리티-일본의 외국인집중거주지역을 사례로」, 『지리학 논구』, 24, 2005, 216~229쪽

조현미, 「베트남 북부지역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초국가적 사회공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2013, 494~513쪽

조현미, 「요세바 고도부키에서의 시공간과 로컬리티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2016, 383-396

石黒 馨 · 上谷 博, 『グローバルとローカルの共振』, 人文書院, 2007

稲葉佳子 · 塩路安紀子等, 『外国人居住と変貌する街』, 学芸出版社, 1994

奥田道大 · 田嶋淳子, 『新宿のアジア系外国人』, めこん, 1993

奥田道大編, 『コミュニティとエスニシティ』, 勁草書房, 1995

徳永康元, 『ブダペスト回想』, 恒文社, 1989

西岡美樹, 『共生の真実、外国人集住地域における地域の変容』, 大阪私立大学校大学院卒業論文, 2011.

広田康生 · 藤原法子, 『トランスナショナル · コミュニティ、場所形成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都市社会学』, ハーベスト社, 2016.

野呂芳明, 「変貌する東京の景観-街を見る複数の視点」, 『グローバル都市研究』, 3, 2010, 83~91쪽

Keiko Imai, Old Tokyo,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120

Massey, D, The politi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2), 1991, 267~281

Massey, D,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94, p.280

Smith, M.P., 2001, Transnational Urbanism, Malden, MA:Blackwell

シリーズ：日本のエスニックタウン、20年を経た新大久保コリアンタウン,
http://www.nippon.com/ja/features/c02401/(2017년11월21일 검색)
大久保の歴史、新宿区
http://www.city.shinjuku.lg.jp/soshiki/261700okubo_00028.html
在留外国人統計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96143
新宿区住民基本台帳　http://www.city.shinjuku.lg.jp/kusei/file02_00029.html
鉄砲隊の由来と足跡, ttp://www.edo-hinawa.com/archives/cat_50150921.html

Abstract

The Changes of Timespace and Locality in the Korean Town of Okubo Area, Tokyo

Jo, Hyun-mi

Locality refers to the intersection of specific social relations and social processes of each place that linked in a unique wa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various political, economic and historical relations and their internal diversities intersect at a particular place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pect of locality. It is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flows of various relationships occurring in fixed loc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ficial road structure and local residents of the Okubo area, where Korean Town in Tokyo is located, has been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def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property of region since the Edo period. As a result, development has been lagging behind, and old housing and the structure of street networks has played a role as a take-off position for special groups, and has also been used as a residence for social lower classes.

After the defeat of Japan and a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according to the liberalization of foreign travel in Korea and alleviation of immigration policies of Japan, Japan's bubble economy period, economic recession, changes in political patter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oncentrated residence area of Koreans formed in Okubo flourished as a Korean town where the craze of the Korean Wave could be felt throughout the whole body. And also, it became the place of a manifestation of anti-Korean sentiment.

Okubo ara was a symbol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 symbolic place of new Korean culture, also the place that exposes an extreme manifestation of Japan's right wing's exclusive nationalism. And the current Okubo area is producing a new hybrid culture with the changing role of Chinese, Nepal, and other Asian people who have left to find new opportunities along with the downturn of the Korean wave.

key words : Okubo Area, Locality, Korean town, globalization, global sense of place, place-making